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YahooFinance: 미 실업률 5% 미만 최장기간 눈앞…60년 만에 처음
- WSJ: 미 소비가 인플레 뚫고 경제 성장 견인
- CNBC: 서구 인구 감소 시작, 재정 압박 커져

[인공 지능]
- WSJ: 예측이 불가능한 AI 요금으로 기업들 부담
- CNNBusiness: 테크 종사자 10명 중 6명 "AI 사용 회피"
- TechCrunch: 트럼프, '슈퍼 지능 전담 그룹' 신설… AI 주도권 확보 추진
- CNNBususiness: 앤스로픽, 시장 불안하지만 11월에 IPO 추진

[오일]
- Bloomberg: OPEC+, 11월 원유 생산량 동결… 유가 $100 육박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NBusiness: 휘발유가 급등에 미 하이브리드 수요 폭증
- CNBC: 일본 기업들, 중국에서 철수한다

[오늘의 금융 지표]
- 미 증시 지수,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

[미국 경제]

YahooFinance: US unemployment below 5% approaches historic record not seen since mid-1960s
미 실업률 5% 미만 최장기간 눈앞… 60년 만에 처음

- 미국의 이란 공격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가계 체감 경기는 불안한 상태이지만 미 고용 시장은 역사적인 기록 달성을 앞두고 있다.

- 미국 대형 금융그룹 Truis에 따르면, 미 실업률이 5% 밑을 유지한 기간이 1960년대 중반 이후 가장 긴 연속 기록에 근접했다.
- 이는 9월 고용 보고서가 예상외의 부진을 보이며 흔들리는 시장 상황 속에서 고용 시장의 펀더맨털을 가늠할 주요 지표로 평가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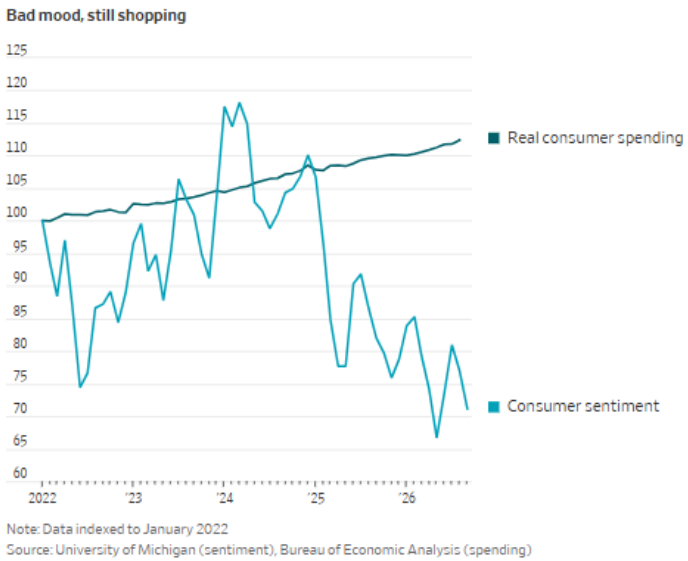


An economic record is likely to fall soon.

기사

WSJ: The Mighty American Consumer Is Crashing Through Inflation and Driving Growth
미 소비가 인플레 뚫고 경제 성장 견인

- 인플레에 대한 장기적 불만과 미 소비자 심리 악화에도 불구하고, 미 가계 지출이 물가 상승과 실질 구매량 증가에 힘입어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 WSJ에 따르면, 최근 12개월간 미 가계 지출은 6.1% 증가했다.
- 그러나 저축률이 4.1%로 떨어지고 가계 부채가 최고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소비 증가세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사

CNBC: The 2029 tipping point: Western populations are about to start shrinking, piling pressure on public finances
서구 인구 감소 시작, 재정 압박 커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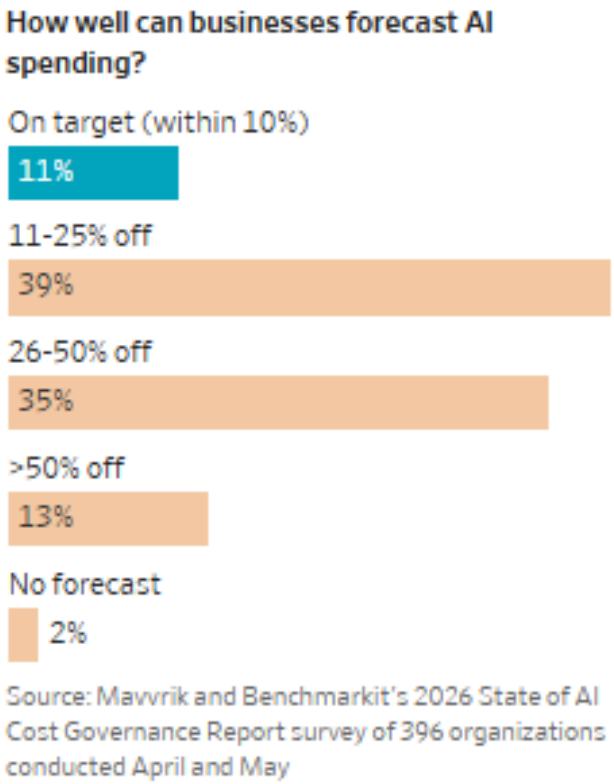
- 유럽 인구가 2029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재정적 압박이 서구권 국가들의 공공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 글로벌 신용평가사Moody's에 따르면, 고령화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인구가 실제로 감소하기 훨씬 전부터 본격화된다. 무디스 측은 인공지능과 생산성 향상이 노동력 고령화의 충격을 일부 줄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구조적 인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경고했다.
- 미국의 인구 정점은 유럽보다 뒤에 올 것으로 예상되나 이 역시 이민 유입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다.

기사

[인공 지능]

WSJ: Spending on AI Is Becoming Almost Impossible for Businesses to Budget
예측이 불가능한 AI 요금으로 기업들 부담

- AI 이용료를 계산하는 기준인 '토큰'의 사용량을 예측하기 어려워, 기업들이 AI 예산을 짜는 데 큰 애를 먹고 있다. 토큰은 AI가 글을 읽고 쓸 때 사용하는 최소 글자 조각 단위.
- 조사 대상 기업 400여 곳 중 AI 지출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응답한 곳은 11%에 불과했다. 특히 AI가 일을 할 때 쓰는 토큰 수가 매번 달라진다.
- 같은 AI 모델이라도 똑같은 작업을 할 때마다 소비하는 토큰 양이 제각각 달라질 수 있어 비용 관리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기사

CNNBusiness: Their jobs were among the first to be changed by AI. Now some are trying to avoid it
테크 종사자 10명 중 6명 "AI 사용 회피"

- AI 도입의 최전선에 서 있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사이에서 AI 기술에 대한 회의론과 이를 회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 IT 프로그래밍 관련 회사 Stack Overflow의 글로벌 설문조사(169개국 개발자 3만 명 대상)에 따르면, 테크 분야 종사자의 60%가 AI 도구 사용을 피하려 노력한다고 답했다.
- 개발자들은 AI가 보조 수단이나 방향 제시 역할은 할 수 있으나, 상황이나 맥락(Context)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해 실제 업무에서 기대만큼 유용하지 않으며 복잡한 코딩을 완벽히 대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기사

TechCrunch: Trump unveils his new Super Intelligence Force
트럼프, '슈퍼 지능 전담 그룹' 신설… AI 주도권 확보 추진

- 트럼프가 미국의 인공지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신규 국정 기구 '슈퍼 지능 전담반(Super Intelligence Force)' 신설을 발표했다.
- 그는 연방 국가정보국장(DNI)을 책임자로 지명하며 해당 기구가 행정부 전반의 AI 정책을 총괄할 것이라 밝혔다.
- 앞서 백악관은 행정명령을 통해 'AI'라는 용어를 '슈퍼 지능(Super Intelligence)'으로 재선언했으며, 이번 전담반 구성 역시 이러한 브랜드 전환 작업의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기사

CNNBusiness: Anthropic expected to IPO despite market uncertainty, AI slowdown calls
앤스로픽, 시장 불안하지만 11월에 IPO 추진

- 생성형 AI 'Claude'의 개발사 앤스로픽(Anthropic)이 최근 AI 안전성 우려와 시장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상장할 것으로 보인다.
- 지난 6월 비공개로 상장 서류를 제출한 앤트로픽은 빠르면 올 11월 증시에 입성할 전망이다.
- 이번 상장을 통해 최고 1천억 달러를 조달, 기업 가치가 약 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성공할 경우 앤트로픽을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반열에 올리며 AI 열풍의 최대 이정표가 되는 것이다.

기사

[오일]

Bloomberg: OPEC+ Agrees to Keep Oil Output Targets Steady in November
OPEC+, 11월 원유 생산량 동결… 유가 $100 육박

- 중동 지역 분쟁으로 주요 생산국의 원유 공급 차질이 지속되는 가운데, OPEC+가 11월 감산 규모 및 생산 목표를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 이번 결정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에 육박하고 경유(디젤) 소비자가격이 신고점을 경신하는 상황 속에서 내려졌다.
- 7개 핵심 산유국 실무그룹은 오는 11월 1일 추가 회의를 열고, 내년도 원유 생산 정책은 11월 29일 정례 장관급 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CNNBusiness: Americans are rushing to buy hybrid cars. They’re turning to Asian brands to do so
휘발유가 급등에 미 하이브리드 수요 폭증

- 이란과의 지속적인 전쟁으로 휘발유 가격 급등하면서 미국 내 하이브리드 차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 차량 업체들이 그 수혜를 독식하고 있다.

- 디트로이트 중심의 미국 자동차업체들이 하이브리드 자량 모델 부족을 겪는 사이 3분기 기아의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152% 폭증했으며, 현대차 또한 39%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 일본의 도요타(29%)와 혼다(21%) 역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며 연비 효율성이 높은 차량을 찾는 미국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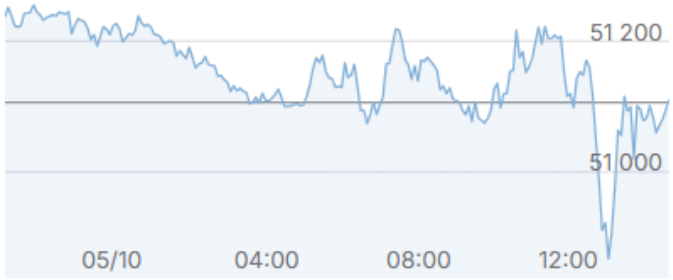
CNBC: ‘Unwelcome and unsafe’: Why Japanese companies are retreating from China at a historic rate
일본 기업들, 중국에서 철수한다

- 일본 기업들이 외교적 갈등과 경영 환경 악화 속에서 역사상 가장 빠르고 큰 규모로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다.
-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일본 기업 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아시아 최대 두 경제국 간의 외교적 마찰이 심화되는 가운데, 관세 리스크, 노동 및 생산 비용 상승, 중국 현지 업체들과의 치열한 가격 경쟁이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
- 중국 진출 일본 기업 수는 피크 대비 10~15% 이상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 미 국채, 주요 환율]

1D 1W 1M 6M 1Y 5Y Max



US 30	51,136.80	-40.6	-0.08%
US 500	7,759.10	+36.2	+0.47%
Dow Jones	51,128.15	-48.81	-0.10%
S&P 500	7,759.26	+36.54	+0.47%
Nasdaq	27,393.00	+202.14	+0.74%
S&P 500 VIX	15.58	+0.27	+1.76%
Dollar Index	101.94	+0.223	+0.22%

U.S. Treasurys

	COUPON (%)	PRICE CHG	YIELD (%)	YIELD CHG
30-Year Bond	5.125	-10/32	5.683	0.069
10-Year Note	4.625	-3/32	5.329	0.046
7-Year Note	5	-24/32	5.210	0.044
5-Year Note	5	-1/32	5.089	0.025
3-Year Note	4.375	0/32	4.980	0.016
2-Year Note	4.75	0/32	4.850	0.011
1-Year Bill	0	0/32	4.466	0.004
6-Month Bill	0	0/32	4.295	0.004
3-Month Bill	0	0/32	4.105	0.005
1-Month Bill	0	0/32	3.941	0.000

미국 USD	유럽 EUR	일본 JPY	중국 CNY	유로/달러	달러인덱스
1,342.80	1,505.75	849.82	200.27	1.1253	102.19
-16.70 (1.23%)	-22.80 (1.49%)	-10.32 (1.20%)	-2.20 (1.09%)	+0.0020 (0.18%)	+0.26 (0.25%)
10. 6. 00:30 ● 실시간	10. 6. 00:30 ● 실시간	10. 6. 00:30 ● 실시간	10. 6. 00:30 ● 실시간	10. 2.	10. 5. 11:21 ● 10분 지연

환전고시환율 | 국제시장환율

미국 USD

1
1 달러

대한민국 KRW

1,342.80
1,342.80 원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